

계, 허물없는 생활도리 제시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7>

계율이란 불자로 하여금 나쁜 행위나 법답지 못한 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규율을 말한다.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욕적 입장에서 제정된 것도 있고, 교단의 통제와 질서 유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다. 그런데 계율은 행위의 규율이므로 주로 행동과 말씨에 의하여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불자는 이 계율을 지켜서 엄격하고 맑은 수행 생활을 함으로써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불교 수행의 요체는 계율을 지켜 주고 허물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선정을 닦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청정한 지혜를 길러 번뇌를 없애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계정에 삼학이다. 그런데 계에 의해 생활을 청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定)을 닦을 수 없고, 정(定)이 없는 참된 지혜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는 삼학의 근본이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또 계는 불자의 생활지침이며,

불교정신이 생활 가운데서 밖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계는 불자의 상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시기 전 최후의 설법에서, "나의 입멸 후에는 계를 스승으로 삼아 잘 지키라."고 부촉하신 것

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가 살아 있는 곳에 계가 있고, 계가 있는 곳에 불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가 불자를 위한 세속의 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경전으로, 『불설선경』이 있다. 이 경은 불자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자세와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고 자세하게 설하고 있다. 한역의 이역본으로는 『불설선

경』, 『불설시가라윳윅법경』, 장야함경과 중야함경에 있는 『선경』, 남전대장경의 『교계심갈라경』 등이 전해지고 있다. 경의 내용을 남전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어느 때 세존께서 라자그리하의 대나무숲에 머물고 계셨다. 어느 날 대부호의 아들인 심갈라라는 아람, 왕사성을 나와 머리와

방위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방위를 숭배하거나 금기시하는 일종의 신앙태도를 보여 주는 예이다.

"대부호의 아들이여, 성현의 가르침에는 이렇게 여섯 방위에 예배해야 하는 것은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부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에 부처님은 심갈라에게 말

생을 죽이는 행위,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행위, 애욕에 의한 사된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또 '네 가지 악한 일'은 탐욕·노여움·어리석음과 겁에 질려 그릇된 길을 걸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문'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술과 같은 것에 빠지거나, 때 아닌 때에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구경거리나 도박 따위에 빠지거나, 나쁜 벗과의 교제에 빠지거나, 나태함에 빠져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어 부처님은 여섯 방위에 대해 동쪽은 부모님,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은 친구와 동료, 아래는 고용인, 위는 수행자라 하시며 각 방위에 해당되는 덕목을 일러 주신다.

먼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은, 양친이 나를 양육했으므로 그들을 봉양하고, 그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하고, 가계를 존속시키고, 재산 상속을 하며, 조상에 적당한 때 공물을 바쳐야 한다. 이에 대해 양친은 자식을 악으로부터 멀게 하고, 선으로 인도하며, 기능을 학습시키고, 적당한 아내를 맞게 하고, 적당한 시기에 상속시켜야 한다.

자식은 이렇게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님께 봉사해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한다. 이렇게 하면 동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한다.

(해인총림 울원장)

"나와 남 더불어 이익 상생이 곧 대승의 길"

더불어 사는 길이 대승의 길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위한 수행의 삶이 곧 대승의 길이라 하겠습니까. 남을 이익 되게 하는 게 곧 나의 이익임을 깨우치는 것이 대승불교의 첫걸음입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된다거나,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기는 것은 중생심일 뿐입니다. 이를테면 도둑질을 하면 잃는자는 불행하고 훔치자는 이익일 것 같지만 이는 양쪽 모두 중생심을 일으켜 박복(薄福)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승은 더불어 같이 이익을 보는 상생(相生)의 길입니다. 보살이라는 수행자의 이상형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성취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자 하는 가장 성스러운 불자의 길인 셈입니다.

수행에 있어 발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발보리심(發菩提心)은 중생이 한없이 많더라도 끝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오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동안의 삶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보살의 길로 나아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발심입니다. 이러한 발보리심은 내가 수행해서 성불하겠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여 부처가 될 때까지 그들을 받들겠다는 철저한 마음으로 아상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번뇌는 아상(我相)으로부터 옵니다. 나를 세우기 때문에 남이 생기고 이에 따라 갖가지 애착과 증오의 마음을 일으켜 수많은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마경)의 가르침처럼 보살에게는 '나'와 '나'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윤회는 이런 아상을 죽이기 위해 모든 상(相)을 버리고 스스로를 복성거사(卜屠居士)라 칭했습니다. 복은

하(下)보다 낫다는 의미이고 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항상 빛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내가 무너지고 낮아질수록 지혜가 나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라는 고집 덩어리를 없애지 않고서는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빈 모습을 보는 것이 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아심경』에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지혜로서 고통의 세계를 갖지만 이는 양쪽 모두 중생심을 일으켜 박복(薄福)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승은 더불어 같이 이익을 보는 상생(相生)의 길입니다. 보살이라는 수행자의 이상형을 통해서 육바라밀을 성취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자 하는 가장 성스러운 불자의 길인 셈입니다.

고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생들에게 있어서 보살행의 실천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의 습기가 두터워, 행하고 나면 다시 아상이 살아나 내 욕심을 채우고는 다시 자신의 중생심을 보살심으로 포장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을 접을 수 없는 것은, 그 업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텅 비어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면 진정한 어떤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본래 없기에 죄 역시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대승의 수행이며, 더불어 사는 것이 대승의 길입니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법회 중계

법화경법회

<2000년 7월 18일>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번뇌는 아상에서 생겨나
아집없는 내 빈모습 볼때
너와 내가 둘 아닌 하나

오계 지키고 게으르지 말도록 육방예경 여섯방위 덕목 밝혀

윤리-1

뜻을 단정히 하고 합당한 뒤, 동서남북 상하의 여섯 방위에 예배하고 있었다. 그 때 세존께서 탁발하러 가는 길에 심갈라가 절하는 모습을 보고 물으셨다.

"대부호의 아들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이른 아침, 이곳에서 절하고 있는가?"

"어진이시여! 제 아버지가 입종할 때에 저에게 '아름아, 너는 날마다 여섯 방위에 예배드려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여섯

음했습니다.

"성스러운 재자가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을 버리고, 네 가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또 재산을 잃는 여섯 가지 문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이와 같은 열네 가지의 악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방위를 지키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일을 해결하였으며, 육체가 멸한 후에 좋은 곳인 하늘에 태어나느니라."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은 중

인문·사회과학 불교연구 '바람'

세계의 불교학 <27> 미국 ②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법회를 행하는 미국인 불자들.

미국의 대학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불교학 관련 강좌 개설과 수강 현황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 종교학 편람>(Directory of Departments and Programs of Religions Studies in North America)에 따르면,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의 버스웰(Robert E. Buswell, Jr) 교수가 가르치는 '한국불교학개론(Introduction to Korean Buddhism)'의 경우,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당 250여 명(1997년 기준)이나 된다. 이 대학에서 불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현재 이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교학 관련 강좌는 UCLA뿐만 아니라 하버드·위스콘신·시카고·버지니아·에일·버클리 등 명문 주립대와 사립대를 합쳐 20여 곳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에 관한 하버드 또 이들 대학에서 나오고 있는 논문의 수로도, 미국 대학가에서 성장하고 있는 불교학 열풍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불교 관련 논문 451편. 이 시기에 발표된 불교학 관련 논문의 연구 주제를

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890년대는 불교와 기타 종교와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그 주요 내용은 불교와 브라흐만교, 불교와 기독교, 로찌(Lotze)의 영혼 개념과 불교의 영혼 개념과의 비교 등이다. 1900년대에는 불교 윤리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

연구, 인도의 중관불교 등이다. 1960년대는 인도·일본·상좌부불교에 대한 연구가 나왔으며, 한국 불교에 관한 첫 논문도 이 시기에 선보였다. 연구 주제들은 윤리, 해탈, 동기부여(초발심), 믿음 등이었으며, 이들 주제들은 초기불교, 상좌부불교, 선불교, 정토불교의

티베트·일본불교 강세... 소승불교도 관심 불교학 연구 '골동품지식' 전략 우려도

문에서 발표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는 아마도 불교를 비롯한 일본 불교 연구가 부상했다는 게 특징이다. 1940년대에는 대국불교의 의례와 행위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1950년대의 중심 연구 주제는 진종(眞宗) 중심의 일본불교, 기독교 구원론과 일본불교의 해탈론들과의 비교, 미얀마불교의 열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1970년대부터는 국가별, 주제별 등에서 다양성을 보였다. 1970년대는 지역적으로 인도불교, 일본불교 등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중국불교와 한국불교 역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티베트불교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시작되고 있었다. 주제 면으로는 인도불교의 경우 신애주

의(Devotionalism), 만달라 상징주의, 세속성과 시간 등이며, 부파불교와 상좌부불교 분야에서는 공덕, 수행, 해석 문제 등이 논의됐고, 중국불교 분야에서는 정토종, <유마경>, 복종선, 유식학, 화엄종 등이 연구됐다. 한국불교 연구 주제는 지능, 원효, 원불교 등이며, 일본불교 분야에서는 진언불교, 대종교, 창가학회 등의 연구 성과물이 나왔다. 1980년대는 국가와 주제의 다양성을 보인 70년대의 경향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넓어졌고, 연구 주제 역시 실재론, 인생관, 의례, 배불문제, 종교 대화, 절 생활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

되었다. 특히 이 때부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관 학문 분야는 신학, 정치학, 문학, 심리학, 신화학, 여성학, 교육학, 연극학, 인류학, 사회학, 미학, 인종학 등 거의 전 분야의 인문·사회학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동시 대 미국의 불교학자 중에는 미국 불교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시 보는 움직임도 있다. 불교학 연구를 학문적 범주와 혹은 패러다임학의 과정을 거치며 '공공영역적'인 지식이나 '유물론적' 지식으로 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힘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잔식 (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인진고 (2개월 100만원), 차신양가진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비운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힘을 먹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감정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혜명 합장

가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의 료 인 호성 양방 · 한방병원

무료진맥 · 완치!!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모든 질병에서 선명해진 인체를 만들고 싶은가요? 젊고 건강한 인체를 만들고 싶은가요? 노년에서 젊어지고 싶은가요? 노년에서 젊어지고 싶은가요? 노년에서 젊어지고 싶은가요? 노년에서 젊어지고 싶은가요? 노년에서 젊어지고 싶은가요?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가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시미늘」 성분을 대량추출

다. 세시미늘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취급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환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은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풍,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